

본문: 신명기 17:14~20

제목: 겸손한 왕

## - 설교 한문장 요약

“우리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사랑과 섬김, 겸손으로 다스려 나갑시다”

### 1.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왕

오늘 본문은 하나의 가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같은 형태의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삼상 8:5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와는 다른 왕,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은 왕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하셨고, 부정하신 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형태의 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 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인 자신의 권위와 역할을 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금지하셨습니다. 앞서 재판장과 지도자는 백성들 가운데 선출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16:18), 인간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야 했으며,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또 이방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왕권 강화 및 군사외교를 위해 말과 아내(하렘), 은 금을 많이 두지 말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각각 **애급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혼인관계를 통해 이방 우상 반입을 우려하시며, 부의 총당을 위해 당할 백성들의 고난을 염두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나라의 안보는 군사력이나 외교력, 부요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달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왕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습니다. 인간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 충성하여 그 명령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과 수단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인간 왕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14절에서 백성들이 요구하게 될 “모든 민족들 같은 왕”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 재력을 통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왕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왕의 역할까지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 재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사망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 2. 왕으로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창 1:26의 “**נָתַן**”(다스리다)는 하나님께서 우주적 통수권을 지상의 대리자인 왕에게 넘겨줄 때 사용되는 어구입니다. 즉,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로, 왕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벧전 2:9**은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회복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대리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 방법과 수단은 누군가를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겸손임을 십자가를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회사가, 학교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합니다.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에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새계명의 결론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25:17~19

제목: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 - 설교 한문장 요약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 1. 기억에서 지워버릴 아말렉

삶은 기억의 총체라고 이야기 할 만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잊지 말라”며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길에 행한 일입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약의 산, 시내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군을 더디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적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은 피곤한(고갈되고 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행진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18절 말미에 그 이유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אֵל, 경외하다)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전쟁입니다. 오랜 기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과 전쟁과 약탈로 먹고 살아왔던 아말렉의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출 17:1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즉,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뒤쳐진 약자들을 치는 비겁함도 그들의 악함이지만 그렇게 했던 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또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대대로 싸우리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울에게 아말렉의 진멸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아각 왕과 좋은 가족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원인을 “여호와와 그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אֵ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삼상 15:24)**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경질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훗날 다윗은 삼상 30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되는 은혜를 베푸시어 자유롭게 살아갈 땅과 평안까지 약속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경외하지 않음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 2.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남아 있었다면 아말렉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기 때문에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지셨고, 성령과 물의 세례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생활이 익숙한 우리들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애굽을 그리워하기 까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진멸하는 싸움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언약으로 약속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주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하나님을 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약속 받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지니라”

본문: 신명기 30:1~10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하나님

#### - 설교 한문장 요약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 1. 하나님이 행하실 마음의 할례

오늘 본문 1절 중에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갈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28장에서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중점은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끝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가게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쫓겨간 땅에서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것, 즉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10절의 말씀은 변형된 키아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는 것은 “돌아올 것”(2, 8-10절), “말씀을 청종할 것”(2, 8-10절), “번성할 것”(3-5, 9-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6~7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쫓겨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미 신 10:16에서 언급하고 있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할례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신실함을 몸에 세기어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냄으로 자녀를 낳을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와 같은 개념을 렘 31:31-34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이스라엘을 향해 율법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언약인 새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주요 골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또 겔 36:24-27에서는 백성의 마음에 두는 그것을 “내 영”이라 말씀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마음의 할례란 성령의 내주하심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28장에서 약속된 축복(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7절은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는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는 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나 노력, 능력, 심지어 요구가 없더라도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로만 얻어지는 언약과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 이르러 성취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그들의 입신양면이었다면, 부활과 성령의 임재 이후 그들의 사

역의 동기는 성육신하시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었습니다.

## 2.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고자 하고, 봉사와 헌신에 힘씁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혹은 개인의 만족과 보람이라면 그것은 얼마가지 않아 실패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부르시는 말씀이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행 19:17)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무엇하나 틀리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 본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눅 11:13을 통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충만함을 받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

### - 참고 문헌 및 설교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대한기독교서회, 장일선

『현대성서주석: 신명기』, 한국장로교출판사, 패트릭 밀러

『엑스포지멘터리: 신명기』, 국제제자훈련원, 송병현

『WBC: 신명기(상)』, 솔로몬, 두에인 L. 크리스텐센

『WBC: 신명기(하)』, 솔로몬, 두에인 L. 크리스텐센

『모세의 고별설교: 신명기의 구조와 신학연구』, 솔로몬, 성기문

『신명기 II』, 솔로몬, 김영욱

『신명기 III』, 솔로몬, 김영욱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부